

제목	[맑스반] 맑스주의와 문화연구		
개요	<p>맑스주의와 문화연구는 접합될 수 있을까? 맑스주의의 학문적 자장에서 논의되는 모순과 과잉결정, 이데올로기, 계급이라는 개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명과 암은 무엇인가? 맑스주의의 자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론적 도구와 학술적 자산을 얻을 수 있을까? 본 세미나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고자 문화연구의 형성, 그리고 이후의 궤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맑스주의의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맑스주의적 문화연구의 주제들에 대해 탐구하며, 이것의 명과 암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세미나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얻게되는 다양한 학술적 자산들을 이론적 도구로 삼아, 세미나 구성원 각자의 작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 하며, 나아가 맑스주의의 지적 자산과 접합을 통해 사회와 문화 현상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는 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p>		
이름이	이준형, 구승우		
주차별 내용			
	내용	텍스트	Additional
1주차	맑스주의와 문화의 문제	<p>K. Marx. <독일 이데올로기> - 제1권 1장 「포이어바흐: 유물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의 대립」 R. Williams.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 1장, 2장</p> <p>마르크스, 『자본』, 길 - 1장 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p>	백승욱. <생각하는 마르크스> pp. 356-398.
2주차	알튀세르와 이데올로기론	<p>L. Althusser. <맑스를 위하여> pp. 159-226; 279-382, - 「모순과 결정(연구를 위한 노트)」 - 「유물론적 변증법에 대하여(기원들의 불균등성에 관하여)」</p> <p>L.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p>	E. Balibar. <마르크스와 철학> - 3장.
3주차	알튀세르라는 지적 유산의 계승 혹은 비판 포스트-알튀세르, 그리고 '주체'라는 새로운 문제	<p>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시쓰는 맑스주의 사상사></p> <p>지젝, 『이데올로기의 송고한 대상』, 새물결 - 1부 「증상」 - 2부 「타자 속의 결여」</p>	
4주차	문화연구와 맑스주의	<p>E. Laclau & C. Mouffe.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p> <p>S. Hall.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p> <p>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p>	
5주차			
텍스트 리스트			
<p>Althusser. L. <맑스를 위하여> pp. 159-226; 279-382 /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Balibar. E. <마르크스의 철학> - 3장 Hall. S.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Laclau E. & Mouffe. C.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Marx. K. <독일 이데올로기> 1권 1장 / <자본론> 1장 4절 Williams. R. <기나긴 혁명> - 1부. (1장 창조적 정신부터 4장 사회의 이미지까지) 1부 Zizek. S. <이데올로기의 송고한 대상></p> <p>백승욱. <생각하는 마르크스> pp. 356-39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시쓰는 맑스주의 사상사></p>			